

지역 소식통

완주군 상판면지사협 어린이날 케이크쿠폰지원

완주군 상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규호)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케이크 쿠폰을 전달했다.

지난 4일 상판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상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동들을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각 가정에서 소소한 감동을 선사했다.

쿠폰은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가정의 달에 더욱 관심이 필요한 10가구에 지원했으며, 쿠폰은 관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쿠폰을 지원 받은 가정은 "어린이날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강원희 상판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세심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들이 뜻깊은 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대한적십자 완주협의회 완주군에 리면 기탁

대한적십자사 완주지구의협의회(회장 최윤정)가 가정의 달을 맞아 완주군에 리면을 전달했다.

지난 4일 완주군은 최윤정 대한적십자사 완주지구의협의회장과 회원 10여명이 군청을 찾아 리면 150박스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완주지구의협의회는 봉사단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봉사 실천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윤정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일 완주군수는 "매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주는 대한적십자사 완주지구의협의회가 관내에 있어 든든하다"며 "어려운 시국에 보탬이 되는 적십자사에 힘입어 행복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이엔푸드, 투자협약 체결

지평선산업, 20억원 규모 공장 및 설비 증설투자·신규인력 22명 추가채용 계획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4일 농업회사법인(주)이엔푸드(대표 문형선)와 20억원 규모의 지평선산업단지 공장 및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이엔푸드는 2013년 설립된 닭고기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5년 자체브랜드 '수비드립'을 런칭한 후 다양한 제품과 조리법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 구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적극 대응해 지속적으로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지난 2019년 지평선산업단지 내 3,306.3㎡ 부지에 신규공장을 건축하고 본사를 이전한 (주)이엔푸드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

식)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수출검역기준 충족에 필요한 설비확충을 위해 금번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까지 현 부지내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214㎡ 규모의 공장동을 증축하고 2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속에서도 금번 투자를 결정해준 (주)이엔푸드 문형선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김제시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시민사회단체, 새만금 관할권 확보 본격화

김제시의회-새만금공동발전시민위원회, 악의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범 조성 위한 순회 설명회 예정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확보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아 갈 계획이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김제시민 단합을 호소했다.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인 동서도로 관할신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김제시민의 10년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4일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이관재 위원장 양해건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시와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관내 사회단체장들을 포함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관할결정 신

청에 필요한 지적측량도 미공유에 대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대시민 홍보 및 여론을 확산하고 시민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의 당위성, 새만금지구 관할결정을 보류하는 악의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범을 조성하고자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은 "김제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범시민 결의대회 법적 대응 등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진행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일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1,000여명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치매안심센터와 김제시청 연계 개인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동부권역(신풍동, 요촌동,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1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일일이 생활지원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하고 후원받은 생활용품도 함께 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자녀가 없거나 왕래가 거의 없는 어르신 열다섯분을 대상으로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따로 선물을 전달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자칫 모두가 행복한 날에 소외되어 더욱 외로울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노기보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용위기 기업에 3천만원 지원

완주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완주군(박상일 군수)이 고용위기 기업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일 완주군은 2021년 완주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고용위기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기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는 ▲위기기업 고용유지 교육훈련 지원 ▲전염병 확산방지 방역시스템 구축지원 ▲근로환경개선 생산현장 체질강화 지원 사업이다.

교육훈련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 방역시스템 구축지원은 사업체 당 최대 200만원, 근로환경개선분야는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상용차 산업 활성화와 미래형자동차 신기술 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관내 상용차 및 자동차 부품, 식품산업 분야 관련기업과 지역 핵심기반 산업 중소기업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대 선발한다.

또한 수소경제도시에 맞춰 수소전기차·미래형 특장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산업과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식품산업 등 근로환경지원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관련 부품·제품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근로자 교육과 창업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사업비 소진시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완주로컬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작성해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063-261-14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완주군 기업의 제작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작업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신규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지난해 출범된 고용위기기업 및 일자리안정화 프로젝트다.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와 11개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중대형 상용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생명 및 농식품 산업분야 기업 육성과 수소전기차 자동차 신기술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지역 업체, 3단계 가맹점 추가

지역 29개 소상공인 업체, 임산부·다자녀 가족할인가맹점 협약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4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역의 29개 소상공인 업체가 3단계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가맹점으로 추가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김제시와 김제시 이아날기쁨은세상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북 최초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가맹점은 관내 소상공인 업체와 자율 협약을 맺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이용 금액의 5~10%를 할인해 주는 시책으로 올 3~4월 만족도 조사 결과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 출산 우대문화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3단계 가맹점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공개모집한 결과 29개 업체가 추가 신청하였으며 특히, 김제시학원연합회

(회장 이혜선) 소속 16개 학원이 전 과목 10%(현금, 카드) 할인에 동참하여 다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었고 의류, 스타벅스, 공방,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할인가맹점은 총 75개소로 확대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협약식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지역사회 내 저출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출산·양육우대 문화 확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업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임산부·다자녀(세자녀이상)가족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확인서류(신분증, 산모수첩, 임산부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 등)만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